

취재 김성미 리포터 grapin@naeil.com

## 내면의 불안에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셰익스피어 카운슬링〉

자은이 체사레 카타  
퍼넬롯 다산초당



죽느냐 사느냐, 그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일상의 질문에 대한 셰익스피어가 답한다. 하는 일마다 족족 꼬이고 이유 없는 불안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는 법을 배운다. 이 책의 자은이 체사레 카타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뛰어난 이유를 단순히 아름다운 이야기나 언어 때문만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는 우리가 흔히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죄책감과 욕망, 질투와 분노 등 내면의 어둠과 싸우는 장면이 곳곳에 담겨 있다고.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면 내면에 드리운 어둠에 대처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뛰어난 작가'를 넘어 혼란스러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된 자아를 만들어줄 '인생의 카운슬러'로 거듭난다. 다양한 고민과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는 해설서다. 평소 영문학과 철학, 심리학과 카운슬링 분야에 흥미가 있는 학생에게 적극 추천한다.

### 장면 #1

한때를 할, 뜻이 깨달음에도 괴물처럼 생긴 소환사를 숭배하는 우리의 아비에게 말을 속이는 요정의 딸 난이 펼쳐진다. 신비한 마법이 펼쳐지는 이 특별한 시간 에 채워질 세 명의 젊은이가 숲에 모여서인데, 이들은 과연 숭배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까?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일에서 즐거움을 시작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의 주머니로 이동하여 소리나 냄새로 몸을 움직이게끔 판단하죠. 인간이 한 명의 일을 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지를 떠올려 보면 우리도 동물처럼 처음부터 삶에 필요한 걸 다 알고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안 익히 못하지만 사실 우리도 동물처럼 배우지 않아도 일정 나이까지 되면 스스로 깨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바로 아이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고 생각할

017



책 읽을 마음을 다잡는 것만큼 읽을 책을 고르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학생들 혹은 온 가족이 함께 읽어도 좋을 새로운 책을 <내일교육>이 꼼꼼히 살펴 소개합니다. 격주로 찾아올 두 권의 새 책, 기대해주세요. **편집자**

## 스펙보다 대세는 일머리



〈한 권으로 끝내는 소프트 스킬 10〉

자은이 라제쉬 스리바스타바  
퍼넬롯 프리릭

스펙이 좋은 능력자들이 넘쳐나는 시대라지만 정작 회사에서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드물다. 이유는 바로 자격증이나 점수로 짐작할 수 없는 일머리의 차이 때문. 이 책의 자은이 라제쉬는 스펙 좋은 인재와 기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인재상의 간극을 일머리, 즉 '소프트 스킬'의 차이로 보고, 새로운 시대에 꼭 필요한 10가지 기술을 실제 사례를 통해 흥미롭게 설명한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미래 시대에도 소프트 스킬만 있다면 경쟁력은 충분하다. 자유로운 상상력을 꽃피우는 창의력부터, 색다른 시선으로 업무를 바라보게 만드는 비판적 사고,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는 올바른 질문법과 회사가 모든 직원에게 바라는 기업이 정성까지. 다양한 글로벌 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작가는 이 훈련법으로 키운 '일머리'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평소 컨설팅과 자기계발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물론 경제·경영 관련 진로를 꿈꾸는 청소년이라면 일독할 만하다.

